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가축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사항 등을 행정규칙(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방역 관리 강화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 조치 일부 조정 등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산란계·육계 등 4개 축종 별로 ▲동물복지정책 방향 ▲동물복지 윤리 ▲사양·질병 관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9일 산란계 동물복지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교육은 20일 육계(검역본부 전주사무소) 등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

### ‘닭·오리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20일 닭·오리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닭·오리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펴냈다. 그동안

닭·오리고기 수출업체는 우리나라 가금육 규격과 가금육 생산체계, 등급제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영문자료가 없어 수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가금산물 수출 시 외국 바이어에 대한 홍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안내서에는 다리, 날개, 가슴의 3개 대분할 부위와 아랫다리, 안심살 등 6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 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닭과 오리의 부산물 부위를 별도로 설명해 가금육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우리나라 가금육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닭·오리도체 등급제, HACCP제도를 소개해 국내산 닭·오리고기

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 ‘스마트한 축산통계 30’ 최신 자료 배포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이 주요 축산 통계 정보를 담은 ‘스마트한 축산통계 30’ 프로그램을 최신 자료로 갱신하고 보급을 시작했다. 스마트한

축산통계 30은 축산 분야 주요 통계 가운데 30개 주요 항목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한 프로그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자료 갱신을 통해 △축산농가 현황 △축산업 생산액 △농림축산업 부가가치 생산액 △가축 사육 마릿수 △축종별 수입 현황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담았다. 또한 축산물 도매 가격, 소매가격, 산지가격, 배합사료 가격 동향까지 수록했다. 온라인 URL(<http://nias.go.kr/30/1903.pdf>)을 입력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www.nias.go.kr](http://www.nias.go.kr))에서도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 이력제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지난 21일



부터 22일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19 렛츠락 페스티벌’에서 축산물 이력제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축산물 이력제 퀴즈 에어볼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부스에는 양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전국 순회 HACCP 기술지원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용란 유통의 위생 안전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인증 희망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맞춤형 전국 순회 기술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지난 4월 시행된 '가정용 달걀 유통체계 개선'의 효율적인 정착을 유도 및 현장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자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기술지원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 '구로 G페스티벌 2019' 참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주최·주관한 '구로 G페스티벌 2019'에 참가해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삼시세끼 계란 서명 운동 △계란 안전성을 담은 카드뉴스 △포토존 △에그투게더 캠페인 홍보 △계란 마라톤대회 홍보 △기념품 증정 행사 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동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 약 2천명이 계란자조금 부스를 방문했으며 방문객 중 630여명이 꾸준한 계란 소비를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 (사)한국육계협회

#### 오송으로 사무실 이전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25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로 186, 303호(오송프라자)

전화: 043-908-5722 팩스: 043-908-5725

### (사)한국토종닭협회

#### 토종닭인정위원회, 제한적 승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용란을 생산하는 재래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았다.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이하 토종닭인정위)는 지난 15일 광진구 소재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회의실에서 토종닭인정위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이 지난 8월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황색, 흑색, 백색 재래닭에 대한 토종닭 인정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받은 토종닭은 식용란을 생산하는 용도에 한해서다. 이상진 토종닭인정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그 다양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